

2014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

메시지 7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하나님의 분배 안에서 생활함

성경: 롬 6:6, 7:15—8:13

- I. 하나님의 분배 안에서 생활하기 위한 열쇠는 필사적인 추구자들을 위한 장인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다—롬 7:24—8:2, 28-29, 시 105:4.**
- A. 로마서 7장은 '육체 안에' 있는 체험이고 로마서 8장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신성한 영과 이 두 영이 함께 연합되어 한 영이 된) '영 안에' 있는 체험이다—롬 8:4, 9-10, 16, 고전 6:17, 딤후 4:22.
 - B.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한 누림은 우리를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끈다. 우리가 몸 안에서 몸을 위해 살 때 이 법은 우리 속에서 운행한다—롬 8:2, 28-29, 12:1-2, 11, 빌 1:19.
- II. 생명의 영의 법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 우리는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세 생명과 네 법을 보아야 한다.**
- A. 선의 법을 가진 창조된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혼 안에 있다. 이 법은 타고난 인간 생명, 즉 사람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다—롬 7:21-23, 창 1:31, 전 7:29.
 - B. 죄와 죽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악한 사탄적인 법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 이 법은 믿는 이들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인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롬 6:6, 7:15-20, 23-24, 요일 3:10, 요 8:44, 마 13:38, 23:33, 3:7, 롬 3:13.
 - C. 생명의 영의 법을 가진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생명은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있다. 이 법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롬 8:2, 10, 16, 요 1:4, 10:10 하, 14:6 상, 고전 15:45 하.
 - D. 각각의 법을 가진 이들 세 당사자는 지금도 믿는 이들 안에 있는데 (하나님, 사람, 사탄인)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다(창 3 장).
 - E.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이들 세 법에 더해서 믿는 이들 바깥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롬 7:22, 25.
- III.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생명의 영의 법이다.**
- A. 모든 생명은 법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생명은 하나의 법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가장 높은 생명이며 이 생명의 법은 가장 높은 법이다—비교 요 1:4-5, 12:24, 14:6 상, 10:10 하, 고전 15:45 하.
 - B. 삼일 하나님은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박힘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의 영 안에 '과학적인' 법, 즉 자동적인 원칙으로서 설치되신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들, 심지어 가장 위대한 회복들 중에 하나이다—롬 8:2-3, 10-11, 34, 16.
 - C. 생명의 영의 법, 즉 복합적인 영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며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롬 8:2 상, 빌 1:19.
 - D.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능력이다. 그것은 신성한 생명의 자연스러운 특징이고 출생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기능이다—롬 8:2, 빌 2:13, 겔 36:26-27, 잠 30:18-19, 사 40:28-31, 히 12:2 상, 빌 4:13, 골 1:28-29.
 - E.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은 전기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성한 '전기'의 법이신 하나님의 운행은 이 법의 '스위치를 켜는' 우리의 협력을 요구한다—빌 2:12-13.

F.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는 것 안에 남아 있으면서 주님과와의 접촉 안에 머무는 동안 생명의 영의 법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노력할 필요 없이 일하여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고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기게 한다—롬 8:10, 6, 11.

1.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분투를 멈춰야 한다—갈 2:20 상, 롬 7:15-20.

a. 만일 우리가 죄가 범이며 우리의 의지는 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7 장에 갇힐 것이다. 우리는 결코 로마서 8 장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b. 바울은 계속해서 원했지만 그 결과는 계속적인 실패일 뿐이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결심을 하는 것 뿐이다—롬 7:18.

c. 우리 속에서 죄가 잠자고 있을 때 이것은 그저 죄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것은 '악'이 된다—"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롬 7:21.

d. 의지를 사용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고정하고 영에 따라 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롬 8:6, 4, 빌 2:13, 히 12:1-2.

2. 우리의 영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드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잠기고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적셔지며 그분의 탁월함을 반사하도록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시 27:8, 105:4, 영한 동번 찬송 #784.

3. 우리는 기도예 의해서와 의존하는 영을 가짐에 의해서 내주하시고 설치되시고 자동적이며 내적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협력함으로써 생명의 주님과 우리의 교통을 유지하고 일의 주인이신 그분과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살전 5:17, 엡 6:17-18.

4. 생명의 영의 법의 운행을 위하여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인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인식을 관심해야 한다—롬 8:6, 16, 요일 1:2-3, 6-7, 말 2:15-16.

a. 부정적인 면에서 죽음의 인식은 죽음의 느낌 곧 약함, 공허함, 불편함, 불안함, 억눌림, 메마름, 어둠, 고통 등이다—롬 8:6 상.

b. 긍정적인 면에서 생명의 인식은 생명과 평안의 느낌, 곧 강함, 만족, 평안, 안식, 해방, 생생함, 축축함, 밝음, 위로 등이다—롬 8:6 하.

c. 생명의 인식은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에 따른 양심에 속한 의식과 관계가 있다—엡 4:18-21.

IV.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육체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비교 롬 8:6, 13.

A. 육체는 부패하고 오염되고 변태된 몸이다.

1. 사람의 몸은 원래 순수했지만 사람의 타락을 통해 사탄은 자기 자신을 사람 안으로 주입하여 사람의 몸은 육체가 되었다—창 3:6, 롬 7:18 상.

2. 우리의 몸은 '죄의 몸'(롬 6:6)이며 '이 죽음의 몸'이다(롬 7:24), 죄의 몸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는데 매우 활동적이며 능력이 가득하다. 이 죽음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약하고 능력이 없다(롬 7:18).

3.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죄와 죽음의 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비교 롬 8:23.

4.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타락한 존재 전체를 가리킨다. 타락한 존재는 오늘도 타락한 육체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히 육체이다—롬 3:20, 창 6:3 상.

5. 육체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집회소'이다. 육체는 가망이 없으며 결코 개선될 수 없다—롬 7:17-18, 21, 비교 요 17:15.

a.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이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역량이 없다.

b. 육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롬 8:7-8.

B.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 자신이다.

1. 죄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며(롬 7:11),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즉 우리를 통치할 수 있으며(롬 6:12, 14)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 행하도록 할 수 있다(롬 7:17, 20), 이 모든 활동들은 죄가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죄는 악한 자, 사탄의 악한 본성이다. 사탄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 자신을 사람 안으로 주입했고 이제는 타락한 사람 안에 거하며 활동하고 일하는 죄악된 본성 자체가 되었다—비교 마 16:22-23.
 3. 갈라디아서 2장 20 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말한다. 로마서 7장 17 절에서 바울은 "이제 ...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죄가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4. 육체는 죄인 사탄에 의해 완전히 점유되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롬 7:8 상.
- V.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주권으로 우리의 죄악 되고 추한 육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살고 그 영을 더 얻을 수 있다—롬 8:2.**
- A.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거나 아니면 육체 안에 있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제 삼의 장소는 없다—롬 8:4-13.
 - B. 법적으로 말해서 사탄과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한 번만에 영원히 유죄판결 받았다(롬 8:3, 요 3:14, 히 2:14, 고후 5:21),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을 수 없도록 돕고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가 우리에게 남아 있도록 허락하셨다(빌 3:3).
 1. 죄악되고 추한 육체가 주는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얻는 것이나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해 넣어지는 것에 대해 필사적이지 않을 것이다.
 2.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나 영성이나 승리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는 것이다. 종종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열고 그분께 돌이키는 것을 더 원하며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더 허락해 드린다—롬 8:28-29.
 3. 우리의 어려움과 패배와 실패와 낙심은 육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육체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돌이키도록 강요하고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는 데 필사적으로 만들며 우리가 영 안에서 계속 머물도록 깨어 있게 하는 것에 있어서만 유익하다—마 26:41, 엠 6:17-18.
 4. 주님은 우리가 승리를 하는가의 여부는 관심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 곧 우리가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을 관심하신다—빌 3:8, 고후 3:18.
- VI.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 곧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획득하기 위해 영에 따라 행하는 것만을 관심해야 한다—롬 8:4, 빌 3:8, 롬 10:12-13, 엠 6:17-18.**
- A. 우리의 육체는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 복합된 복합체이다. 우리의 영도 그리스도와 그 영과 은혜로 복합된 복합체이다—딤후 4:22, 롬 8:16, 갈 6:18.
 - B. 오직 영에 의해 행하는 사람들만이 지방 교회의 건축을 위해 합당한 지체들이 될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방 교회에 문제가 될 것이다—갈 5:16-26.
- VII. 신성한 생명의 자동적인 법인 내주하는 영에 대한 우리의 누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그 목표는 신격이 아니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하는 것이다—롬 8:2, 28-29, 12:1-2, 빌 1:19, 엠 4:11-12, 16.**